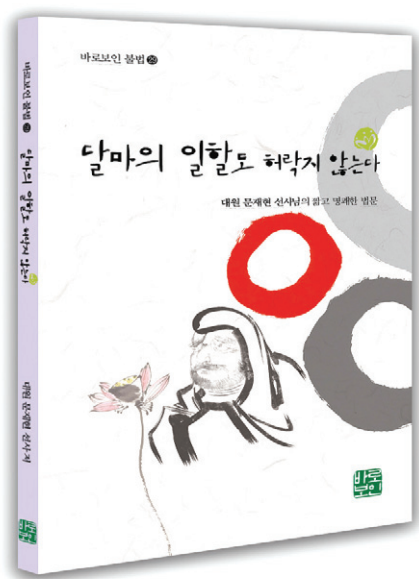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의 저자 대원 문재현 선사



사건과 각종 자료를 통해 당대의 글자의 쓰임을 연구하여 번역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번역을 법리에 맞도록 새로이 보이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존 번역과 다른 점 하나를 들어달라고 하자, 대원 문재현 선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양구(良久)라는 단어는 과거에 천편일률적으로 ‘말없이 있다’로 번역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양구의 내역을 공안의 의로에 따라 읽어낸다면 ‘말없이 있다’와 ‘말없이 보인다’의 두 가지로 번역해야 합니다. 선사들의 말없이 있음은 대중들에게 이를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법을 통째로 보이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이 어렵게만 여기는 경전과 선사의 번역에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와 같은 저술서에서는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쉽고 명쾌한 말로 불법을 설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법문집을 출간하였고, 현재 화엄경 80권 중 8권의 번역을 마쳤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대원 문재현 선사의 행보가 단순히 교화와 불사, 역경작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는 2009년 ‘사막화방지 국제연대’를 설립하여 현재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지구환경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중 ‘사막 해수’로 사업’은 IUCN이 주관한 세계자연보전총회(제주도, 2012년)를 통해 아프리카의 니제르공화국과 부르키나파소와 국제협약을 맺는 등 큰 결실을 맺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원 문재현 선사는 ‘21세기에 인류가 해야 할 일’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깨달음 이라면 이변적으로는 깨달음을 얻게 하여 영생불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인을 이끌어야 하며, 사변적으로는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는 백 년, 천 년 앞을 내다보아 이를 미리 앞서 대비하도록 만인의 삶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뜻은 다만 진리 전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서로 함께 영원한 극락을 누릴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이사일어로 베풀어 교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 문재현 선사가 지향하고 있는 불법의 세계이다.

삼원선원 (031)534-3373



대원 문재현 선사

선사들의 말없이 있음은 대중들에게 이를 기회를 주는 방법, 때로는 불법을 통째로 보이는 도리

불법에 있어서 가장 난해하다는 경전과 선서(禪書) 번역서는 물론, 현대인이 불법의 뜻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저술서에 이르기까지, 옛과 이제를 자유로이 오가며 방대한 불서 편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원 문재현 선사를 만나보았다.

대원 문재현 선사는 금강경, 반야심경 등의 경전과 전등록, 선문요송 등의 선서를 포함한 58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경전과 선서 번역에 있어서 수십 권의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2011년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을 출간하여 화제가 된 해원스님(무아선원장)은 경, 율, 논을 의지하여 몸소 수행한 결과를 『금강삼매경』대장경 원문을 해석하여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로 증득한 내용을 서술하여 출간 하였다.



무아선원장 해원 스님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을 통하여 1년 동안 무아선원에서 마음공부를 한 불자들은 우울증이 사라졌고, 가족관계가 부드러워졌으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등 참선하던 무심에 들어간다고 체험담을 밝혔다.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배운 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해원스님은 불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 수행방법을 전하는데 있어 더욱 활기찬 의욕이 생겼다고 한다.

만물을 통하여 고뇌와 느낀 고통을 회통(回通)하고, 무상(無相) 무생(無生)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닦을 수 있도록 서술

이번 출간한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는 만물이 무상(無相)이나 우리를 눈에는 모든 것이 유상(有相)으로 보여 지기에 갖가지 기준과 생각으로 법을 세우니, 삼세(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 괴로운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한 만물이 무생(無生)이나 우리들은 모든 것이 유생(有生)으로 작용하여 신구의로 가지 가지 습관적 종자를 만들게 되고, 그 과보로 현생에 행동함이 부자연스럽고 더욱 고뇌하여 생각에 빠지니, 우울증 정신장애로 괴로운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저자인 해원스님은 만물을 통하여 고뇌와 느낀 고통을 회통(回通)하고, 무상(無相) 무생(無生)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닦을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강삼매경은 대승을 통틀어 거두므로 ‘삼대승경’이라 하고, 무량한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무량의종’이라 하며, 선경으로 지혜를 증득하여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번뇌를 타파하니 ‘금강삼매’라 한다. 매우 청정한 이가 이경을 지니며, 이경을 지니는 이는 다섯 가지 복(福)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증생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둘째 몸은 갑자기 요절하지 않고, 셋째 사사로운 논리도 잘 답하고, 넷째 즐겁게 증생을 제도하며, 다섯째 능히 성스런 도(道)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내가 부촉하는 바는 오직 이 경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해원스님은 수행자가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를 의지하여 수행하여도, 위의 다섯 가지 복대로 안된다면 논리는 이해하고 알았으나, 과거생에 이룬 저런 기준을 세운 법들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이루어 질 때까지 초발심으로 정진하기를 당부 하였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이 일어날 때, 불보살에게 자식이 잘되도록 비는 기도를 올린다면, 성취되어도 나중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원함이 생깁니다. 경계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은 과거에 습관적으로 만든 본인 것인데, 참회하여 닦지 않고 자식을 위하여 비는 기도를 하였기에 무엇을 했다는 상(相)이 쌓이게 되어, 미래에 자식에게 바라는 보살심리가 작용하여 서원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닦지 않으면 증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해원스님은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에서는 빛과 무엇을 했다는 상(相)이 나중에 서원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무심(無心)에 들어가도록 지도하고, 여기에 머물러 육도(六度) 증생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미세번뇌 닦아서 보살경지에 이르게 하는 수행을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에서 논하는 요지인 것이다.



무아선원 (031)721-2148~9

자연과 하나 되는 삶, 그 감동을 지향하는 민속죽염

“민속죽염은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태백산맥의 낙동정맥 깊은 계곡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질을 공급받는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서 죽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속죽염은 1988년



민속죽염 최태규 대표

정식 설립 된 이래 죽염 업계의 선발주자로써 죽염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한결같은 책임감과 자부심, 그리고 국민건강에 일조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30여 년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했다고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우리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적인 방법으로 죽염을 생산해 이러한 연구결과로 업계최초로 자색죽염을 생산하게 되었다.

“차별화된 생산 공정과 그 속에 녹아있는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죽염을 만드는데 최선을”

민속죽염 설립은 건강이라는 화두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최태규 대표는 “선천적 요인으로 병약한 유년시절을 보낸 저는 당뇨, 위장병, 축농증, 신경쇠약, 무기력, 관태 같은 늘 고통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극

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과 생에 대한 깊은 회의, 나아가 고통 없이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지향하며 골똥히 사색한 결과, 육신의 완벽한 건강 없이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5세 무렵부터 전국의 유명한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의식을 고양 확장하기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죽염과 만나 건강을 회복시켜 그 외의 고마움으로 죽염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죽염의 효능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저와 같이 허약한 몸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죽염의 효능을 직접 전달하고자 열심히 생산하여 알음알이로 보급하다가 1988년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공장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립과정 에해를 설명해 주었다.

이처럼 민속죽염은 맑고 깨끗한 환경과 까다로운 원료의 선택, 정확하고 세밀한 제조공정에서 투명한 유통에 이르기까지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상의 죽염을 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오염된 공기와 탁한 환경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에 눈 뜨기 전에 진실성을 바탕으로 죽염의 대중화에 힘쓰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건강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죽염업계에 귀감이 될 것이다.



민속죽염 016-823-0483 www.msjy.co.kr

반야동자

반야동자(12절) 3,000부 이상 @ 800 원

- 200부 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보리심

보리심(한지)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since 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선(수첩)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 : 18장

행복한하루(탁상)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연꽃향기(미니)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
- 규격 : 8.9cm × 9.5cm
- 매수 : 16장